

# 얼굴은 '사방사방' 연기는 '팔방미남'

'계룡선녀전' 중영 배우 서지훈

“순수한 원작 속 ‘김김’  
최대한 표현하려 노력  
팬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반야’ 등에서 중흥무진 연기



2016년 크게 사랑받은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 인주 여고생 살인사건 진범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신예 서지훈(21)은 이후에도 OCN '애간장', tvN '계룡선녀전'과 '반야' 등에서 중흥무진으로 활약했다.

연말 중영한 '계룡선녀전'에서는 한없이 순수한 '김김' (김금 역의 애칭)으로, 지난 26일 방송한 '반야'에서는 성장통을 겪는 청춘 영혼으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 서지훈을 29일 광화문에서 만났다.

그는 “영혼도 그렇지만 현실이지만 일상에서 잘 경험해보기 어려운 역할들을 계속 연기해보고 싶다”며 “아직 배우라고 하기에 민망하지만 배우는 참 알면 알수록 어렵고, 그만큼 도전욕구도 생기는 매력적인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훈은 '계룡선녀전' 속 김금만큼이나 실제로도 '사방사방' 했지만, 연기 이야기를 할 때는 한없이 진지한 모습과 신인의 열정을 함께 쏟아냈다.

먼저 첫 주연작이 '계룡선녀전'에 대해 그는 “제가 원작 웹툰 팬이기에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운이 좋았다”며 “사실은 순박하고 듩직한 시골청년 같은 김금과 제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고 걱정했는데 많이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금이 사랑받은 이유는 캐릭터 매력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원작과 차별화를 하기보다는 원작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힘든 사람 도와주고, 타인을 티끌만큼 의심하지 않는 김금, 요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결말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원작과 똑같이 됐죠. 저로서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첫 주연작에서 그는 문채원, 윤현민은 물론 고두심 '선생님' 까지 다양한 선배와 만났다.

“고두심 선생님과도 호흡을 많이 맞췄는데 엄청 긴장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너무 잘 챙겨 주셔서 계속 웃으며 촬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선유님이 '뽀빠지'를 늘리는 장면은 선생님 애드립이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연기를 잘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생각했죠.”

고두심은 '새싹'인 서지훈에게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변한 것도 모르는 채 변하게 된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었다고 한다.

서지훈은 이어 “문채원, 윤현민 선배님도 굉장히 잘 예뻐해 주셨고, (강)미나와도 즐겁게 지냈”다며 “미나는 심지어 아직도 절 ‘아저씨’라고 부르고, 전 ‘점순아’라고 화답한다”고 강조했다.

서지훈은 '반야'에 대해서는 “김금과는 나이 차이도, 환경도 다른 캐릭터라 김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영혼이는 친구들에 의해 행동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현 형 등 형들과의 조화가 참 좋았다”고 말했다.

이제 데뷔 4년 차로 한참 달리는 그는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스스로 장하다는 생각도 든다. 또 이 세계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스크린엔 방송이든 등장했을 때 몰입감을 깨거나 실망을 주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 '도깨비 커플' 톱스타-변호사로 설레는 재회

이동욱·유이나 '진심이 닿다' 출연  
tvN 내달 6일 첫 방송



'진심이 닿다' 이동욱(왼쪽)과 유이나.

2016년 겨울 모두를 홀린 tvN 드라마 '도깨비' 속 저승사자-씨니 커플로 큰 사랑을 받은 이동욱(38)-유이나(37)가 다시 한번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

tvN은 다음 달 6일 두 사람이 출연하는 수목극 '진심이 닿다'를 선보인다고 29일 소개했다. '도깨비'에서 전생의 가슴 아픈 인연부터 현실의 귀여운 로맨스까지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둘은 2년 만에 톱스타와 변호사로 재회하게 됐다.

유이나는 하루아침에 로펌 비서 오진심으로 위장 취업하게 된 한류스타 오윤서를 연기한다. 고등학교 때 광고모델로 데뷔한 후 온갖 간섭 속에 산 그는 서른을 넘기도록 연애 경험이 전무해 드라마로 연애를 배운 인물이다.

그런 그의 앞에 변호사 권정록(이동욱 분)이 나타난다. 답답할 정도로 성실하고 무뎠음이 병인 그는 그저 워커홀릭으로 살다가 오윤서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다. 철딱서니 없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윤서의 미소에 점점 홀리게 된다.

세상에서 연애가 제일 어려운 두 사람이 이혼과 실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진심이 닿다'의 관련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동욱은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유이나와 '도깨비'를 같이 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서 편했다. 덕분에 호흡도 아주 잘 맞고 편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이나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는 걸 알지만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시면 비슷하다는 말을 없을 것”이라며 “이동욱이 있는 현장은 늘 수월하게 진행된다. 내가 오빠에게 많이 의지한다. 권정록이 참 멋있고, '심쿵'한다”고 팀워크를 자랑했다. 다음 달 6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JYP, 일본 소니뮤직과 걸그룹 만든다 ... 울여름 대규모 오디션

JYP엔터테인먼트가 일본 소니뮤직과 합작해 일본 걸그룹을 만든다.

JYP는 “박진영이 오는 2월 7일 일본 도쿄 소니뮤직 본사에서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걸그룹 제작에 대한 구상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JYP와 소니뮤직은 ‘걸스 그룹 프로젝트’라는 타이틀 아래 울여름 일본 안팎에서 대규모 오디션을 연다.

박진영은 지난해 6월 21일 맥쿼리증권이 주최한 '2018 맥쿼리 이머징 인터스트리스 서밋' 특별강연에서 이런 구상을 미리 내비쳤다.

그는 당시 강연에서 “1단계 K팝은 한국 콘텐츠의 수출, 2단계는 해외 인재를 발굴해 한국 아티스트들과

과 혼합하는 것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해외에서 직접 인재를 육성 및 프로듀싱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현지화를 강조했다.

또 “3단계에 해당하는 JYP의 첫 프로젝트가 평균 연령 13살의 6인조 중국 아이돌그룹 ‘보이스토리’라며 “전원 일본인 멤버로 구성된 걸그룹도 준비 중이다. 일본인 멤버로 구성된 ‘트와이스’로 보면 된다”고 소개했다.

JYP가 이처럼 일본, 중국 현지화에 공을 들이는 건 두 나라가 문화적 이질감이 적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시장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발간한 ‘글로벌 뮤직 리포트 2018’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의 음악시장 규모는 세계 2위로, 한국(6위)의 8배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세계 최고를 찾아라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0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방송기자클럽 흥남기 경제부총리 초청토론회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흥남기 경제부총리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불이 오나 봄(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3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0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15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버스 도도 2 55 내 사랑 치유기(재)	
16	00 시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7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스페이스 박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내 사랑 치유기(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8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19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50 원소잡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행전문목 남도에 살아라!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20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21	00 KBS 뉴스9 55 나이의 독립 영웅 (노백린)			
22	00 시사토론 '10' 55 UHD 습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불이 오나 봄	00 황후의 품격
23	00 오솔밭 김제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24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9:00 피피루 안전특고대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50 특집 다큐 - 빛 공해 보고서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20:40 세계테마기행 〈겨울엔 내팔 트레킹 3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랑방 트레킹〉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겨울에는 울릉도 3부 어디까지 가봤니, 울릉도〉
08:30 미니특고대 X	15:00 마사와 곰스페셜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8:45 랄랄라 뽀우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2:45 극한직업
09:00 엄마 까투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5:50 세계의 눈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뽀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굴전과 더덕무침〉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자제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48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60년생 성취의 기쁨을 만끽한다. 72년생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정리된다. 84년생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55, 31</p>	<p>42년생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54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 날 수도 있다. 66년생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니 패념치 말라. 78년생 경험자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90년생 주관관을 내세운다면 상호간에 충돌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0, 67</p>
<p>37년생 북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열고 기쁘게 맞이하라. 49년생 합목적성과 투명성이 성과를 배가 시키게 된다. 61년생 원래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 73년생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85년생 멀리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비취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7, 99</p>	<p>43년생 인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55년생 일회적이거나 과감하게 버려야만 한다. 67년생 중대한 고비에 와 있으니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79년생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이익이다. 91년생 배려에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는 운로이다. 행운의 숫자 : 62, 28</p>
<p>38년생 극진한 정성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50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성사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62년생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두라. 74년생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86년생 소신껏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4, 18</p>	<p>44년생 모든 재앙은 무리함에서 비롯됨을 인식하자. 56년생 적기에 실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68년생 알면서도 매번 당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80년생 생각을 달리한다면 새로움이 보일 것이다. 92년생 진정 시키느라고 애를 먹을 수다. 행운의 숫자 : 86, 56</p>
<p>39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다. 51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63년생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후유증을 남게 된다. 75년생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니라. 87년생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 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8, 63</p>	<p>45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의외의 행운으로 이어진다. 57년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69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라. 81년생 대안원의 합류점이 보인다. 93년생 효율성의 시각에서 가다를 잡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05, 02</p>
<p>40년생 유리한 국면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판세이다. 52년생 공상에 사로잡히면 망신살이 뻗는다. 64년생 의외의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적절하다. 76년생 돈이 좀 들어올 수다. 88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3, 06</p>	<p>34년생 유혹 앞에 오랫동안 노출될 수도 있다. 46년생 가깝게 나타나는 전조를 무시한다면 당황하게 된다. 58년생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라. 70년생 정밀하고 신속하게 임하는 것이 맞다. 82년생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4, 76</p>
<p>41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지장이 없고 마음 또한 편안하리라. 53년생 실제적인 활용 가치에 주목하라. 65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가 보인다. 77년생 무관심한다면 감퇴할 것이다. 89년생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문제점들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8, 32</p>	<p>35년생 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게 되어 있다. 47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문전에 드리워져 있느니라. 59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71년생 반복적인 확인 작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놓치지 않는다. 83년생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0, 9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